

학회 소식

월례회 및 행사 안내

■ 114회 국제이해교육학회 월례발표회 및 총회(2018. 3. 10)

지난 3월 10일 2018년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총회 및 114회 월례회가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유네스코 동향 및 주요 현안과 한국위원회’ 주제로 김광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님께서 기조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이정환 학회 부회장님의 사회로 진행된 월례회에서는 조영한(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한국학과 교수), 이미카(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한국학과 박사과정)님께서 ‘유투브를 통한 한국 문화 번역: 외국인 블로거 사례’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후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조대훈 학회 부회장의 사회로 2017년 연간 사업 보고, 2017년 결산 보고, 2018년 학회 사업 계획 등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 115회 국제이해교육학회 월례발표회(2018. 4. 21)

- 『다시 생각하는 교육: 교육은 전지구적 공동재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한국어판 발간 기념 북콘서트

2018년 4월 21일 오후 3시~6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115회 월례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하는 교육: 교육은 전지구적 공동재를 향해 가고 있는가?』(*Rethinking Education: Towards a global common good?*)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유네스코 본부 공동발간)의 공식 한국어판 발간을 기념하여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는 제115회 월례발표회에서 유네스코 아태교육원과 공동으로 북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회원을 포함한 5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새



로운 전지구적 학습환경 속에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2018 일본국제이해교육학회 참여(2018. 6. 15~17)

일본국제이해교육학회가 2018년 6월 15일(금) ~17일(일) 일본 미야기 교육대학교(宮城教育大学)에서 열렸습니다.

일본국제이해교육학회 제28회 연구대회 참관기

김선미(중앙대학교 언어교육원)

일본국제이해교육학회 제28회 연구대회는 일본 동북지역 센다이시에 있는 미야기교육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센다이’라고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동북대지진과 쓰나미가 있었던 지역이라고 하면 바로



[연구대회회장 미야기교육대학 앞에서] [일본국제이해교육학회 임원진들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지역일 것이다. 하지만 필자에게 센다이해 재해, 재난의 지역이기에 앞서 유학 생활을 했던 지역이기에 각별했고, 미야기교육대학은 석사 과정을 공부했던 모교이기에 더욱 감회가 새로웠다.

연구대회는 6월 16일부터 17일 양일에 걸쳐 개최되었고, 올해는 특별히 금요일에 초등학교 수업 발표까지 참관할 수 있었다. 수업 발표는 2017년부터 한·중·일 3개국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기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치다원화사회에서 상호이해와 공생을 향한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이론적·실천적으로 검토하고, 개발·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생들이 대화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조정해 가는 프로세스 가운데 국가와 국가의 비교와 이해를 넘어, 개인과 개인의 다양한 모



[이기프로젝트 수업 발표]



[이기프로젝트 수업 평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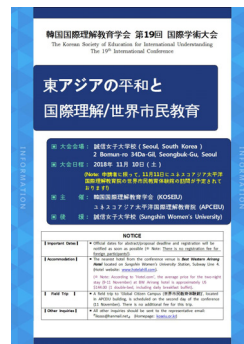
습에 주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는 학생들의 변화가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다.

금요일 저녁은 일본학회 임원진이 준비한 교류회에 참석하였다. 작년 11월 한국학술대회 이후의 재회를 반가워하며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고, 센다이 특산물인 우설과 회로 준비한 식사를 하면서 각 학회의 계획과 비전을 이야기했다. 한창 이슈가 되고 있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도 대화가 무르익어 갈 즈음, 함께 참가한 선생님이 준비하신 문배술로 교류회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남북정상회담 때 평화에 대한 기원을 담아 건배주로 마셨던 문배술을 매개로 한국과 일본 학회 간의 돈독한 교류와 남·북·일 모두의 평화를 기원하는 자리가 되었다.

연구대회는 자유발표와 두 개의 주제를 다룬 심포지엄, 특정과제연구로 진행되었다. 심포지엄A는‘유네스코가 추진하는 글로벌 시민교육(GCED)과 국제이해교육’을 테마로,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의 활동을 계기로 지난해 일본에서 개최된 Educators 'Summit for SDGs 4.7 - For fostering our Global Citizenship-의 성과를 바탕으로 GCED의 새로운 전개방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심포지엄B는‘교실의 마이너리티로서 외국인 아



[한국·일본 학회 교류회]



[2018년 11월
한국국제이해교류학회 안내문]

동 학생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국제이해교육'을 테마로, 한 교실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 관계를 만들어 가면 좋은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외국인 학생 지원, 성과 및 네트워크 형성의 시도를 소개하고, 학교와 교실에서 다문화 공생을 의식한 국제이해교육을 진전시키는 새로운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자유발표는 모두 15세션으로 진행되었고, 한국 참가자 2명도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질의, 응답을 통해 의견을 나누었다.

연구대회 참가자들이 모두 모이는 정보교환회는 샌다이에서 다문화 이해와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미야기화교화인여성연합회와 정주외국인 여성단체가 민족 무용과 민속 악기 연주를 선보였다. 공연과 연주가 끝난 후에는 회장에서 함께 교류하며 심포지엄B의 주제에 계속하여 지역의 다문화 공생의 현상과 과제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



[심포지엄 발표]



[심포지엄 토론]



[한국 참가자 자유발표 1]



[한국 참가자 자유발표 2]

였다. 일본국제이해교육학회장인 후지와라 다카아키 선생님은 정보교환 회에서도 금요일 교류회에서 감동 받은 문배술을 소개하며 남북 평화와 두 학회 간의 돈독한 우정이 계속 되기를 기원하였다. 어느 때보다 건배 한 잔의 의미가 특별한 시간이었다.

문득 생각해 보니 올해로 9년째 일본 연구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그동안 만난 일본 회원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유대감 형성은 국제이해교육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모임이기에 가능했고, 그래서 더욱 이 인연이 소중하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과 일본, 학회와 학회를 넘어 ‘사람’을 향하게 되는 것 같다.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부회장 인사]



[일본국제이해교육학회장 인사]



[외국인 여성 단체 공연]

[공연자들과 함께]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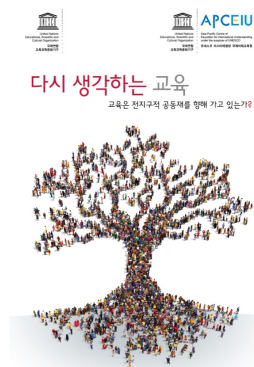
■ 4개국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3차년도 착수회의 개최

4개국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3차년도 착수회의가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아태교육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에 시작하여 올해로 3개년 사업의 마지막 해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착수회의에는 대상국인 캄보디아, 몽골, 우간다, 콜롬비아와 함께 유네스코 국제교육국, 아태교육원에서 총 19명이 참석하여 작년까지의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도에 마무리되어 보급될 최종결과물이 어떻게 큰 파급력을 지닐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가졌으며, 세계시민교육이 국가마다 다른 진입점을 지녔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며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수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각국의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재확인하였고 3개년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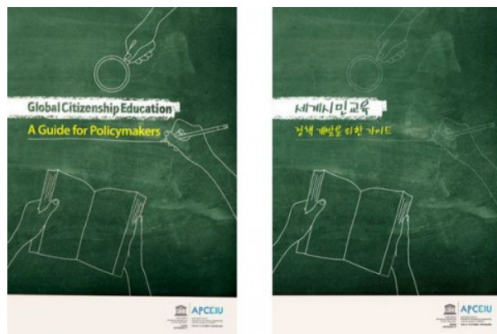
신간 출판

▪ 『다시 생각하는 교육: 교육은 전지구적 공동재를 향해 가고 있는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이 유네스코와 본부와 공동으로 『다시 생각하는 교육: 교육은 전지구적 공동재를 향해 가고 있는가? (Rethinking Education: Towards a global common good?)』의 공식 한국어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홈페이지 단행본 자료실에서 전자책(PDF)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세계시민교육 정책 개발을 위한 가이드』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이 『세계시민교육 정책 개발을 위한 가이드(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 Guide for Policymakers)』를 개발·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한국어판과 영문판이 있으며,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홈페이지 단행본 자료실에서 전자책(PDF)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회비 및 기부금

- 학회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비를 2년 이상 내지 않은 경우 회원자격을 유지하실 수 없습니다. 약정한 회비는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 회비 및 기부금 구좌 안내 : 연회비 2만원
국민은행 878901-00-005021 차보은(국제이해교육)

공지 사항

- 우리 학회가 발행하는 <국제이해교육연구>는 13-2호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회 홈페이지에 있는 논문 작성 양식 및 간행규정, 윤리규정을 참고하시어 2018년 10월 30일까지 원고를 보내주시시오(원고 제출 메일: koseiu@naver.com).
- 우리 학회 회원님들의 소식도 기다립니다. 큰 소식 · 작은 소식 모두 환영합니다.